

보건·복지 ISSUE & FOCU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ISSN 2092-7117
제 164호 (2012-45) 발행일 : 2012. 11. 16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적응실태와 정책과제¹⁾

외국인 100만명 시대에 점차 급증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적응실태를 사회심리, 가족생활, 학교생활, 문화적응의 아동의 생태체계별로 나누어 일반 아동과 비교하였음

조사결과, 다문화가족 아동은 일반아동에 비해서 사회적응정도가 낮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남. 사회심리적 측면에서 우울감은 비슷하고 자존감은 다소 낮았으나, 우려할 수준은 아님. 학교생활적응 수준도 보통 이상임. 문화적으로는 이중문화 특성을 보임. 그럼에도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 고학년, 농촌지역 등 다문화가족 아동의 적응실태는 낮았음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적응력 제고를 위해서는 어머니의 국적을 고려한 서비스 지원과 함께 취약한 가족지원이 필요함. 복지서비스 측면에서는 일반아동과 차별 없는 전반적 아동복지서비스 확충이 필요함



김미숙 연구위원

1. 다문화가족 아동의 증가와 사회적응의 개념

■ 세계는 점차 다문화되어 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외국인 100만명 시대로 접어들었음

○ 다문화시대의 도래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이념적 가치관 측면에서 이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상황임

- 다문화가족의 특성상 국내 결혼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한 결혼취약남성과의 결혼으로 이룬 가족이므로,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취약한 상태에 있음
- 결혼이주 여성의 적응상 어려움은 어머니와 가장 밀착된 자녀에게 영향을 주게 됨
- 다문화가족 아동들은 한국에서 태어났음에도 70% 이상이 피부색으로 인하여 인종적 차별을 받고 있고, 각종 심리적 어려움과 낮은 학업성취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음

1) 본 원고는 김미숙·김유경·김안나·김효진·성수미(2011),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적응실태와 아동복지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용의 일부를 발췌 요약한 것임

○그동안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연구 중 국제결혼을 통한 자녀의 적응양상 문제를 다룬 연구는 최근에서야 나타나기 시작했음

○다문화가족 아동의 심리, 가족, 학교, 지역사회 적응실태를 파악하고 복지욕구를 진단하여 보다 총체적인 시각에서 이들의 사회적응 실태를 살펴보고자 함

■ 다문화가족 아동 현황

○2011년 현재 다문화가족 아동의 규모는 총 151,154명이고, 연령별로는 영유아 93,537명, 초등학생 37,590명, 중학생 12,392명, 고등학생 7,635명으로 전체 다문화가족 아동 중 영유아 비율이 가장 높음(61.9%)²⁾ (표 1)

〈표 1〉 다문화가족 자녀연령별 현황

(단위: 명, %)

연도	구분	만6세 이하	만7세~ 만12세 이하	만13세~ 만15세 이하	만15세~ 만18세 이하	계
2007		26,445	14,392	2,080	1,341	44,258
2008		33,140	18,691	3,672	2,504	58,007
2009		61,700	27,568	7,785	6,431	103,484
2010		75,776	30,587	8,688	6,884	121,935
2011		93,537	37,590	12,392	7,635	151,154
2009년 비율		59.6	26.7	7.5	6.2	100.0
2010년 비율		62.1	25.1	7.1	5.6	100.0
2011년 비율		61.9	24.9	8.2	5.1	100.0

자료: 행정안전부(2011), 「다문화가족 관련 통계」

- 초중고생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경기도, 서울, 인천, 부산, 경남, 전북의 순으로 많이 나타남
- 초중고생의 부모 출신국별 아동 분포는 일본이 32.8%로 가장 많고 중국, 필리핀, 조선족 순임

■ 사회적응의 개념 및 유형

○사회적응이란 사회환경에 대해 적합한 행동이나 태도를 취하며 그 사회규범에 동조하면서 순응해 가는 과정을 말함

-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적응실태를 일반아동과 비교하여 살펴봄

○사회적응 차원에 있어서 생태체계학적 이론을 근거로 사회심리적 적응, 가족생활적응, 학교생활적응, 문화 적응의 차원으로 나누어서 살펴봄

2) 교육과학기술부(2012). 내부자료

2.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적응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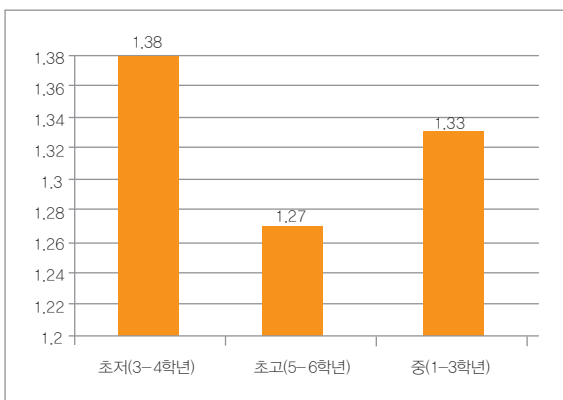
가. 사회심리적 적응실태

■ 다문화가족 아동의 정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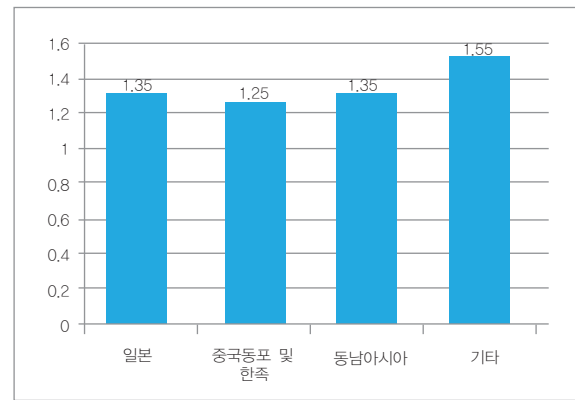
○다문화가족 아동과 일반아동의 우울정도는 차이가 없이 중간 이하임(3점 척도기준 모두 1.34). 다문화가족 아동 중에서는 아동의 학년, 어머니의 출신국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임(그림 1, 그림 2)

-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보다 초등학교 저학년과 중학생이 우울이 높았으며, 어머니의 출신국가가 기타의 경우가 우울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음. 반면, 중국동포 및 한족 아동은 우울정도가 낮음

[그림 1] 학년별 다문화가족 아동의 우울정도



[그림 2] 어머니의 출신국별 다문화가족 아동의 우울정도



주: 우울척도는 3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음을 의미. 기타: 대만, 몽골, 러시아, 페루, 과테말라, 홍콩, 방글라데시, 리투아니아 등
 자료: 김미숙·김유경·김안나·김효진·성수미(2011),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적응실태와 아동복지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우울감과 달리 다문화가족 아동의 자아존중감³⁾은 일반아동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음(다문화가족 아동: 3.60, 일반아동: 3.69, $p < .05$)

- 다문화가족 아동의 특성별로 보면 어머니 출신국이 중국인 경우(한족 및 조선족) 자존감이 가장 높았고(3.75), 동남아시아(베트남,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인 경우(3.39) 가장 낮음. 아버지 학력이 중졸인 경우가 자존감이 낮음(3.41).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다문화가족 아동의 자존감이 낮게 나타남(3.47)

■ 사회적 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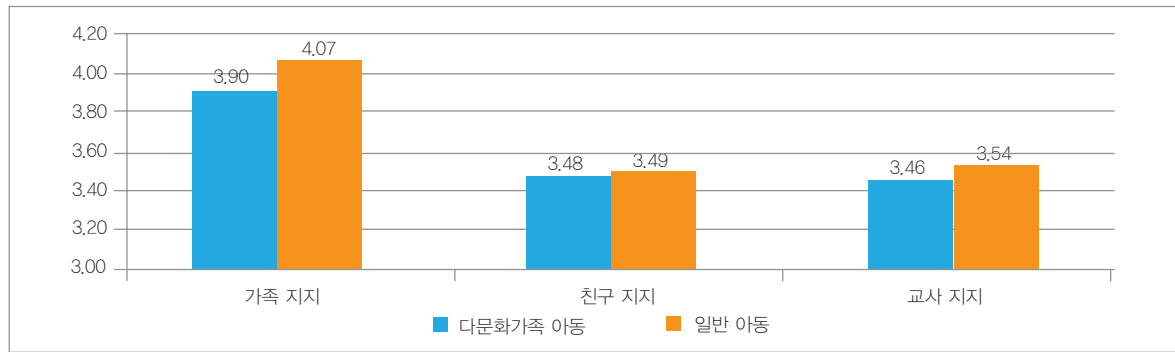
○사회적 지지⁴⁾를 가족 지지, 친구 지지, 교사 지지로 나누어 일반아동과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

- 가족 지지는 다문화가족 아동이 낮았음(다문화가족 아동 3.90, 일반아동 4.07, $p < .01$)(그림 3). 아동특성 별로는 어머니 출신국가가 일본인 경우(3.92)가, 아버지 학력이 중졸 이하인 경우(3.73)가 낮았음
- 친구 지지는 유사하였으며(다문화가족 아동 3.48, 일반아동 3.49), 지역별 차이만 유의함(중소도시가 가장 낮은 3.34)
- 교사 지지도 통계적 차이가 없었음(다문화가족 아동 3.46, 일반아동: 3.54). 남아의 경우(3.36)가 여아(3.55)보다 낮았고, 농어촌의 경우가 낮았음(3.36, 대도시 3.92, 중소도시 3.46)

3) 5점 척도

4) 사회적지지 척도로 한미현(1996)의 연구에서 사용한 사회적 지지척도를 사용함(한미현,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서울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본 척도의 각각의 하위 영역은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각 유형의 지지도는 각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Likert식 5점 척도로 점수를 평점화하였음. 점수가 높을수록 친구 지지, 가족 지지, 교사 지지가 높음

[그림 3] 다문화가족 아동과 일반아동의 사회적 지지 비교



주: 5점 척도

자료: 김미숙 · 김유경 · 김안나 · 김효진 · 성수미(2011),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적응실태와 아동복지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가족 지지도가 낮은 다문화가족 구성원 특히 취약한 경제환경 및 일본 부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아울러 가족 지지에 비해 친구 지지 및 교사 지지는 낮은 상황이므로 이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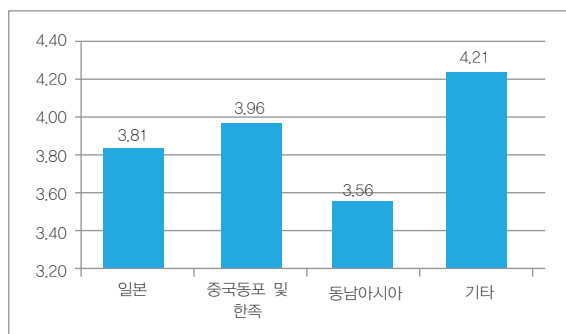
나. 가족적 적응실태

- 가족 적응실태 중 어머니의 부모자녀관계 만족도⁵⁾와 아동의 부모에 대한 애착도⁶⁾를 측정된 결과, 부모자녀 관계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81점으로 보통을 상회하고 있었고, 애착도 수준은 5점 만점에 어머니에 대한 애착 3.52, 아버지에 대한 애착 3.31로 파악됨

○ 부모자녀관계 만족도는 국적, 어머니연령, 학력, 소득에 따라 차이가 남(그림 4, 5). 특히 어머니가 동남아 출신인 경우(3.56), 20대(3.43), 저학력(중졸 이하, 3.56) 및 저소득(100만원 미만, 3.59)일수록 부모자녀 관계 만족도가 낮음

○ 아동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도는 중소도시(3.42), 어머니가 50대인 경우(3.28), 중도입국의 경우(3.51)가 낮았고, 부에 대한 애착도는 아버지 직업이 단순노무자(3.15) 및 기능원(3.17), 아동이 중도입국인 경우(3.28)가 낮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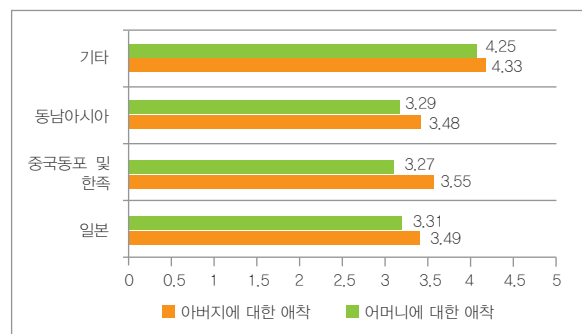
[그림 4] 어머니의 출신국별 부모자녀관계 만족정도



주: 5점 척도

자료: 김미숙 · 김유경 · 김안나 · 김효진 · 성수미(2011),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적응실태와 아동복지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그림 5] 여성결혼이민자 결혼전 국적별 자녀 부모애착도



5) 부모자녀관계 만족도 척도는 김승권 외(2009)가 활용한 척도에 장혜경 외(2003)가 활용한 척도 중 일부를 보완하여 6개 영역을 중심으로 재구성함. 부모자녀 관계 만족도는 5점 척도로 점수를 평점화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자녀관계 만족도가 높은 것을 말함
 6) 부모자녀간의 애착정도는 옥정(1998)이 번안하여 수정 및 보완한 Armsden과 Greenberg(1987)의 부모 또는 또래 애착정도 개정본(IPPA-R)을 사용함. 부모자녀간의 애착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총 6개 문항으로 어머니에 대한 애착 3개 문항, 아버지에 대한 애착 3개 문항을 사용함

다. 학교생활 적응 실태

- 학교생활 적응⁷⁾에 있어서 다문화가족 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해 적응력이 약간 낮았으나, 양자 모두 '보통' 이상으로 적응하고 있음

○ 다문화가족 아동 및 일반아동 모두 친구관계(다문화가족 아동: 3.75, 일반아동: 3.83)와 학교규칙준수에 대한 적응도(다문화가족 아동: 3.75, 일반아동: 3.83)가 높게 나타난 반면, 학교수업에 대한 적응은 가장 낮게 나타남(다문화가족 아동: 3.24, 일반아동: 3.39). 교사관계는 중간수준임(다문화가족 아동: 3.53, 일반아동: 3.57) (그림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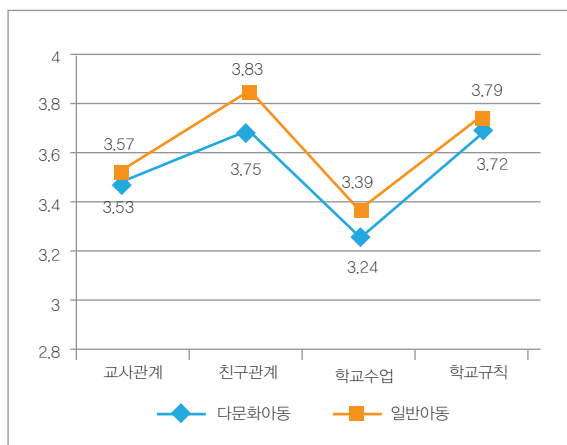
- 다문화가족 아동의 거주지역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농어촌 및 중소도시 아동들의 적응 정도가 낮게 나타남. 이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함

- 전반적인 학교생활 만족에 있어서는 비교적 평균 보통 이상의 수준으로 만족하고 있었음(다문화가족 아동: 3.63, 일반아동: 3.75)

○ 다문화가족 아동의 경우 어머니 취업유무, 아버지 경제활동상태, 지역 차이가 유의하였음. 어머니는 취업인 경우가 학교생활만족도가 낮았고(3.52 대 3.79), 부가 실업자인 경우 만족도가 가장 낮은 3.12임

○ 거주지역별로는 대도시(4.10)보다 중소도시(3.59) 및 농어촌(3.57)이 학교생활만족이 낮음(그림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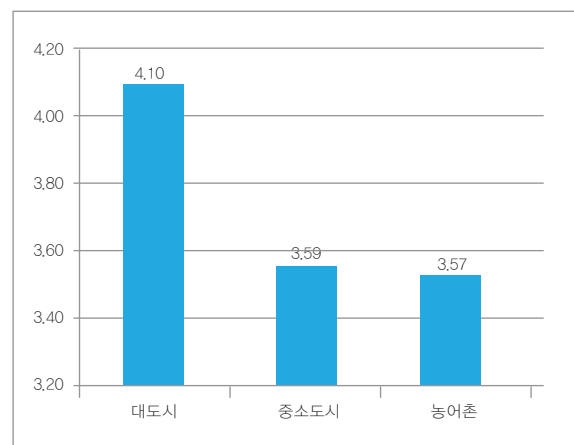
[그림 6] 다문화가족 및 일반아동의 학교생활 적응도 비교



주: 5점 만점

자료: 김미숙·김유경·김안나·김효진·성수미(2011),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 적응 실태와 아동 복지 서비스 지원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그림 7] 지역별 다문화가족 아동의 학교생활 만족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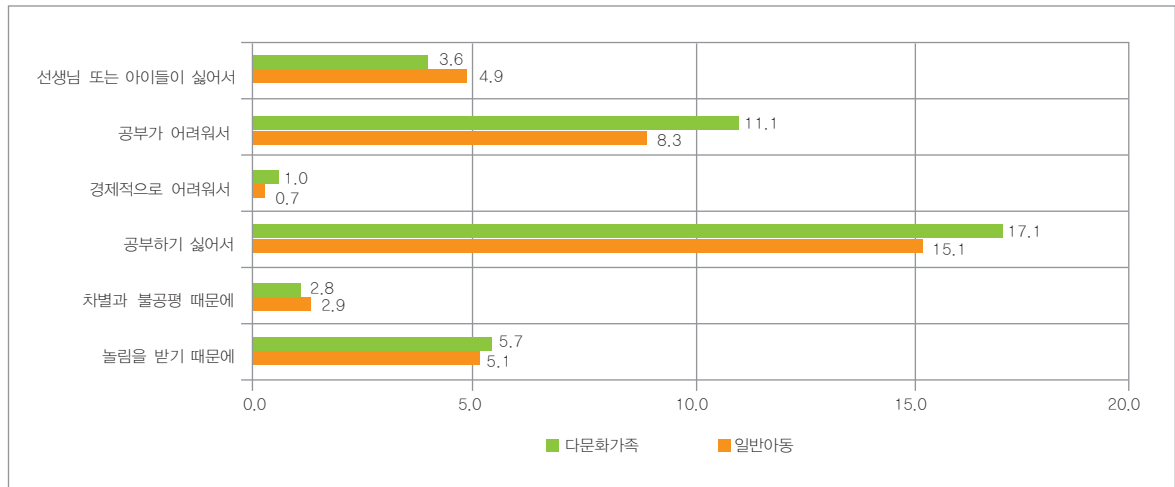
- 학교생활의 어려움을 알아본 결과, 다문화가족 및 일반아동 모두 학교공부에 대한 부담, 숙제 및 준비물을 챙기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학교공부에 대한 어려움은 일반아동에 비해 다문화가족 아동의 비율이 높음

○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충동이 있다면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이 지적된 주요 이유는 '공부하기 싫어서' (17.1%, 일반아동: 15.1%) '공부가 어려워서' (11.1%, 일반아동: 8.3%)임 (그림 8)

7) 학교생활 적응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김아영(2002)이 표준화한 학교생활 적응 척도를 보완·수정하여 16개의 문항으로 구성함. 본 척도는 Likert식 5점 척도로 점수를 평점화하였음

[그림 8] 다문화가족 및 일반 아동의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이유 비교



자료: 김미숙 · 김유경 · 김안나 · 김효진 · 성수미(2011),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적응실태와 아동복지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라. 문화적응실태

- 문화적응에 있어서 어머니 나라 문화에의 적응보다는 한국문화에의 적응도가 더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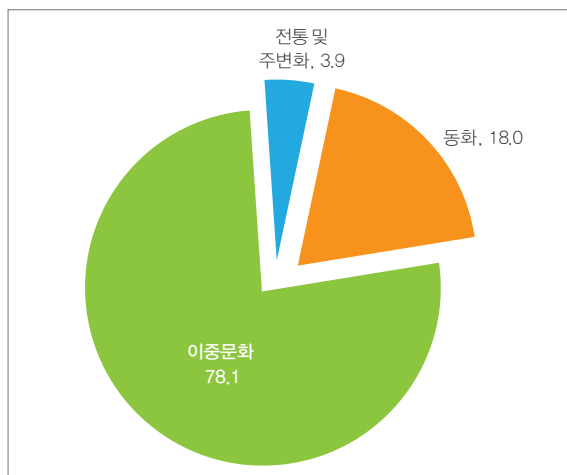
○Cortes, Rogler & Malgady의 이중문화 척도(Bicultural Scale)에 의하면 우리나라 다문화가족 아동은 어머니 나라 및 한국문화 모두 적응도 높은 이중문화유형을 보이고 있음(이중문화비율: 78.1%, 그림 9)

- 일반아동은 다문화에 대해서 비교적 긍정적 수용태도를 보이고 있었고, 부정적 태도는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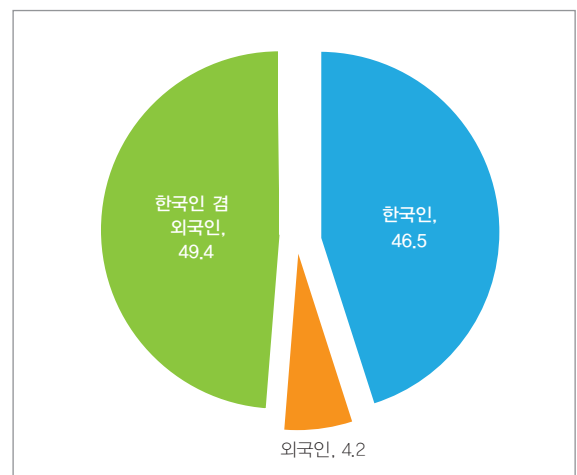
○다문화가족 친구가 한국인이라는 응답은 46.5%이고, 한국인이면서 외국인 49.4%이고, 한국인이 아니라는 응답은 4.2%로 소수임 (그림 10)

○다문화에 대한 부정적 성향은 5점 만점에 2.08로 낮았음. 단, 학년이 올라갈수록 부정적 성향이 증가하는 추이를 보임(초저학년: 1.92, 초고학년: 2.03, 중:2.21)

[그림 9] 다문화가족 아동의 문화적응 정도(%)



[그림 10] 일반아동의 다문화가족 아동에 대한 인식(%)



자료: 김미숙 · 김유경 · 김안나 · 김효진 · 성수미 (2011),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적응실태와 아동복지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다문화가족 아동 사회적응력 제고방안

■ 정책의 기본방향

- 첫째, 다문화사회에서 다문화를 본국 문화에 흡수하는 동화적 접근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며 공존하게 하는 다문화적 접근을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 설정
- 둘째, 다문화가족 아동의 지원은 생애연속적으로 제공
- 셋째, 다문화가족 아동을 위한 지원은 모의 출신문화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진행
-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족 아동에 대한 사업 중심축, 즉 모든 부처를 아우르는 부처 필요

■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심리적 적응도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 다문화 아동가구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고려하여 취약한 집단 판별 및 우선·집중 지원
 -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다문화 아동, 아버지의 사회적 지위가 낮은 아동, 다른 출신국에 비해 소수만이 한국내 거주하여 살고 있는 국가의 출신 어머니를 가진 아동을 위한 정서지원 필요
- 서비스를 출신국별로 세분화하고 소수출신국 어머니들이 연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
- 언어발달 및 학업지원 프로그램 위주에서 벗어나 자아존중감 향상 등 사회심리적 적응력 및 개인역량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 지원
 - 심리사회적 부적응이 높은 고위험군 다문화가족 아동을 선별하여 전문적 심리·상담 프로그램 지원
-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적 배경 등 개인별 특성 및 욕구에 따라 맞춤형 지원이 될 수 있는 일대일 멘토링 서비스를 확대하고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활성화

■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심리적 적응도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 다문화가족 아동의 의사소통 지원 및 이중언어 활용도 제고
 - 다문화가족 간 올바른 의사소통지원을 위한 맞춤형 언어교육서비스 제공
 - 언어교육서비스의 홍보 및 안내를 통한 인지도 제고
 -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이중언어 교육 제공
- 다문화가족 아동의 건강성 제고를 위한 심리정서 강화
 - 전문가상담 및 치료 등 전문적 서비스 제공으로 가족적응력 제고
 - 다문화가족간 자조모임을 활성화하여 사회적 지지 자원 확대
- 바람직한 부모자녀관계 정립 및 부모애착도 향상
 - 부모자녀관계 정립을 위한 전문적 프로그램 도입 및 가족 및 개인 특성별 차별적 지원
 - 다문화가족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국가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자긍심 향상프로그램 확대
 - 부모자녀간 안정된 애착형성을 위한 지원: 문제해결능력 향상 및 스트레스 관리 지원
- 다문화가족 관계증진 및 가족지지를 통한 가족응집력 제고
 - 다문화가족 관계증진을 위한 상담 개입 및 가족프로그램 지원

○ 맞춤형 다문화이해교육을 통한 다문화가족 아동의 정체감 확립

– 다문화 이해 및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맞춤형 교육 제공

■ 다문화가족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도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 다문화가족 아동 지원서비스의 통합 및 전달체계 효율화: 산발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서비스 통합

○ 다문화가족 아동이 처한 개인특성 및 가족특성별에 따른 정책 지원 및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아동 특성별 지원의 차등화

○ 다문화 중·고교생을 위한 정책 마련 및 프로그램 개발

– 다문화 거점학교 운영 확대(중·고교)를 통한 정책 마련 및 신규 프로그램 개발

– 학교 내 다문화 담당 전문 상담가 배치: 진학 및 취업 지원 등

○ 다문화가족 아동에 대한 학교생활적응도를 높이기 위해 학업에 대한 지원 및 숙제, 준비물을 챙기는 것에 대한 사회적 지원

○ 동반·중도입국 자녀를 위한 지원 확충 및 사례관리의 체계화

– 부모의 출신국별, 아동의 연령별에 따른 지속적 사례관리 및 개입

– 아동의 욕구를 파악한 신규 프로그램 개발

○ 부모-자녀 관계 및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교육프로그램 및 시스템 개발

– 결혼이주여성 출신국별 특성을 반영한 자녀관계 및 상호작용 등 부모의 역할 고려 및 가정 내 학습지원 및 학교 준비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 다문화 수용 및 인식 교육필요

– 교사 및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에 대한 수용 및 인식 교육 제공

■ 다문화가족 아동의 문화적응도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 차별화된 정책보다는 일반아동과 같은 맥락에서의 지원 필요

○ 아동 개인의 상황에 맞는 개별화된 학습지원, 상담, 특기적성 교육 등의 프로그램 제공

○ 서비스가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중학생을 위한 기관 확충

○ 이중언어 습득을 위해 결혼이주여성을 활용한 다양한 모국어 교육

○ 다문화가족 아동 및 일반아동 모두를 위한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및 복지제공기관 확충

집필자 | 김미숙(사회서비스연구실 연구위원) 문의 | 02-380-8144

발행인 | 최병호 발행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122-705) | TEL 02)380-8000 | FAX 02)352-9129 | <http://www.kihasa.re.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의 발간자료에서 온라인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kihasa.re.kr/html/jsp/publication/periodical/focus/list.jsp>